



CMF (Color, Material, Finishing)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프런티어를 찾아서!

일곱 번째 이야기.
사단법인 트루.





인천디자인지원센터 2층에는 매 시즌의 트렌드 컬러와 소재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CMF 디자인 라이브러리가 있다. 인천디자인지원센터는 NSDS(노루서울디자인스튜디오)가 전하는 2022-23' CMF 트렌드 주제를 매월 하나씩 선정하여, 그 주제로 제안된 컬러와 소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 디자이너, 작가의 제품과 작품을 이곳 CMF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전시하고 있다. 더불어 폭넓은 전시 감상을 위해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고 온라인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디자인 경영의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ESG 스페셜로 기획하였다. ESG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CMF 분야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디자인 브랜드 4곳을 선별 선정하여 관련 컬러, 소재의 오프라인 전시와 함께 인터뷰 내용을 순차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다.

CMF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제안하는 일곱 번째 트렌드 주제는 '유치적 표현(Playful expression)'이다. 놀이를 통한 스토리텔링의 연결은 긍정적 자유 표현과 순수한 시각적 방향을 제시한다. 더불어 위축되고 억압받는 세상에 대한 해독제로 순수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상호 작용을 장려하며 어린이와 같은 재미를 찾아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 어린이들이 즐기는 게임과 놀이 공간에서 영감을 얻기 바란다. 콜라주 기법과 손으로 꾸민 투박한 형태와 색감들의 실험적인 표현 방법들은 예측할 수 없는 상상 그 이상의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프랑스 국제 디자인 학교의 디자인 프로젝트 제안은 매우 흥미롭다. 학생들은 도시 지역에서 버려진 껌을 모아 다채로운 스케이트 보드 바퀴로 재활용 하는 순환 시스템을 제안했다. 길거리에 껌을 버리는 대신 껌을 디자인 보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거하여 스케이트 바퀴로 재 탄생시켜 이를 구매 시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흥미로운 프로젝트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껌 제조 브랜드인 멘토스(Mentos)와 스케이트 브랜드 반스(VANS)가 함께 참여해 화제가 되었다.



* NSDS(노루서울디자인스튜디오, NOROO Seoul Design Studio)는 시대 변화의 흐름을 논리적, 직관적으로 분석하여 실행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의적 영감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Creative Knowledge Group 이다. 세계 각국의 역량 있는 크리에이터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끊임이 변화하는 고객의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감성적 가치와 창의적 영감을 전하고 있다.

ESG를 선도하는 초록세상 선구자. ‘Playful expression’과 사단법인 트루

“Playful expression” 의 트렌드 주제 선정과 함께 장난감 놀이로 초록세상을 만드는 비영리기구(NGO) “사단법인 트루”를 이번 시즌 두번째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했다. 트루는 1998년부터 장난감을 재활용해온 사회적기업 금자동이와 버려지는 장난감을 새로운 장난감으로 업사이클 하는 장난감학교 쓸모가 만든 환경운동단체이다. 장난감과 아이이들을 사랑하며,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지구환경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혁신적으로 풀어가고자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들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박준성 사무총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사단법인 트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트루 사무총장 박준성입니다. 사단법인 트루는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비영리 환경운동단체 입니다. 어린이의 소중한 친구인 장난감은 버려지면 재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됩니다. 어린이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장난감이 어린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오염시키는 데 일조하는 모순을 막기 위해 저희는 지구방위대 역할을 1998년부터 해왔습니다. 아주 오래되었지요! 사단법인 트루는 고양시 일산구에서 장난감 재활용 공장 과 장난감학교 <쓸모> 교실, 사무실 을 운영하며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환경운동을 꿈꾸고 있어요. 무겁고 위기의식에 가득 찬 세기말적 환경 이야기보다 유쾌하고 접근하기 편한 환경 이야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A. 장난감류로 불리는 소형 복합 플라스틱 폐기물은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평균 240만 톤 정도 발생합니다 . 이 폐기물은 플라스틱 외에도 매우 작은 여러 가지 복합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되는데요,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은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 데 약 500년이 걸릴 정도로 분해가 어렵습니다. 소각하면 지구온난화 물질인 이산화탄소와 자연과 대기에 유독한 물질이 많이 나오구요. 플라스틱은 인류의 삶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바람에 환경을 위협하는 악당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사단법인 트루는 직접적인 플라스틱 장난감 재활용 활동, 업사이클 환경교육, 장난감 분해 자원봉사, 장난감 기부 활동, 재생 플라스틱 업사이클 소재 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사단법인 트루의 장난감학교 프로그램인 <쓸모>도 매우 흥미로운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장난감학교 <쓸모>는 ‘쓸모 없이 버려진 장난감의 모습 대변신’의 줄임말입니다. 장난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분해하여 플라스틱, 쇠, 고무 등 서로 다른 재료를 분리해야 하는데 여러 종류의 작은 재료들로 조립되어 있어 분해와 분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30분 정도 장난감을 분해하면 약 1kg의 플라스틱이 나오며, 이를 가공 없이 판매하면 약 50원 정도 되죠. 경제성이 없고, 재활용 자체도 힘들고,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해서 플라스틱 재활용 업계에서는 장난감이 재활용 기피 대상 1호입니다. 장난감학교 <쓸모>는 폐장난감 플라스틱의 가치를 높이고, 폐장난감의 재활용 과정을 놀이와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이 놀이이자 체험으로써 장난감을 분해하고, 분해한 플라스틱 조각에 마음속 이야기를 담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이나 장난감으로 재창조하도록 돕죠. 거창한 결과물보다는 만드는 과정에서 마음속 이야기를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 <쓸모>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자동기술기법(오토마티즘)을 도입했습니다. 장난감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고 장난감에서 분해된 플라스틱 조각들도 장난감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쓸모>의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환경, 예술, 스토리텔링, 치유 등의 효과를 낳는 아주 좋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10년에 베타 테스트를 거친 장난감학교 <쓸모>는 현재까지 약 40만 명의 유료 체험이 진행되었으며 환경부가 지정한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입니다.



Q.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작품들이 재탄생했나요? 디자인 측면에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장난감학교 <쓸모>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입니다. 장난감의 재활용을 위해 폐장난감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했기에 재활용 과정에 교육적 요소와 예술, 스토리, 과학 등의 프로그램을 융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지요. 이런 활동을 업사이클링이라 합니다. 참가자들의 업사이클링을 통해 수십만 개의 작품이 태어났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작품들도 있지만 <쓸모>의 목표는 버려지는 장난감의 재활용과 참가자들의 마음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물보다는 작품에 깃든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쓸모>의 작품은 따로 분리할 필요 없이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도 의미 있지요. 이런 의도와 의미를 전하기 위해 작가님들과 협업해 만든 작품들이 전국 곳곳에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장난감학교 <쓸모> 외에 사단법인 트루가 진행하는 또 다른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는 바로 업플라스틱 ‘날알’과 ‘널’입니다. 플라스틱 장난감에서 분해해 낸 플라스틱을 PP, ABS, HDPE, LDPE, PS 등 재질별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색깔별로 분류해 플레이크로 만드는데 이 플레이크를 ‘날알’이라 부릅니다. 이 날알을 시트프레스(열 압축기)로 가공한 재생 플라스틱 판재를 ‘널’이라 부르고요. 트루는 버려진 장난감으로 복제가 불가능한 아주 독특한 플라스틱 판재를 만드는 것이죠! 힘들지만 매우 재미있는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작업입니다.



Q. 무엇보다 재활용 소재에서 나타나는 컬러와 패턴이 멋스러운데요. 디자인 기획과 연출에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A. 사실, 의도된 기획과 연출은 없습니다. 그저 저희 트루가 매우 다채로운 색깔의 장난감 플라스틱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보유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장난감 덕에 자연스럽게 만화적 상상력이 가미되는 공간이 저희 작업실이니까요! 플라스틱 업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재이지만, 양질의 재생 플라스틱 소재를 구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수집과 분류, 세척 과정 등에 엄청난 에너지가 쓰이거든요. 하지만 트루는 양질의 재생 플라스틱 조각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재질과 색상의 플라스틱 플레이크인 낱알이 한 달에 약 3,000kg 정도 생산되다 보니 그 낱알로 아주 독특한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사단법인 트루의 낱 생산을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예술을 전공하신 분이라 여러 가지 낱알로 마치 그림을 그리듯 작업을 하셔서 서로 다른 문양의 낱이 창작됩니다. 아마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작업도 많이 있을 겁니다. 플라스틱 낱알을 열 압축하면 녹는점과 플라스틱 재질의 물성들이 달라서 신비로운 문양부터 대리석 같은 문양까지 폭넓게 연출됩니다. 사단법인 트루에 재생 플라스틱 소재가 워낙 많다 보니 풍부한 컬러와 패턴이 가능하지요.



Q. 생활용품, 건축 재료에서 범위를 확장하여 예술 작품까지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A. 업플라스틱 낱은 처음에는 프리미엄 가구의 기초 소재나 포인트 인테리어 타일, 재생 플라스틱 굿즈를 위한 판재를 염두에 두고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의 물성을 파악하여 새롭게 배치하다 보니 매우 독특한 창작물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낱 작품들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과 매우 비슷한 작업인데 시트프레스에 낱알을 넣기 전에 그림을 그려 넣었더니 플라스틱 물성에 맞는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우 성실하게 낱 아트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000여 점의 작품을 만들었고, 계속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고 있지요. 이 모든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플라스틱의 영구적인 재활용에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발명품인 플라스틱이 쓰레기가 되지 않고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오래 써야 하고 계속 재활용 해서 써야 합니다. 사단법인 트루는 그 목표를 아주 성실하고 기발하게 실천하는 중입니다.

Q. 트루와 함께한 회원 또는 고객의 솔직한 반응과 소감이 매우 궁금합니다.

A. 지금까지 트루는 대중보다 한발 정도 앞서 활동해 왔습니다. 트루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금자동이도, 장난감학교 <쓸모>도, 업플라스틱 프로젝트도 그렇습니다.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대중을 설득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보다 앞서서 사회문제에 상업성을 도입해 비즈니스로 풀어내며 사회적 가치와 이익을 동시에 추구했죠. 장난감 재활용, 장난감학교 <쓸모>, 업플라스틱 낱알과 널의 개념은 트루가 거의 처음 도입한 것들이어서 사업을 시작할 때 대중에게 그 개념부터 설명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작업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지요. 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동참해 주는 이들이 아마도 트루의 모든 구성원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회원들과 고객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사업을 이어올 수 있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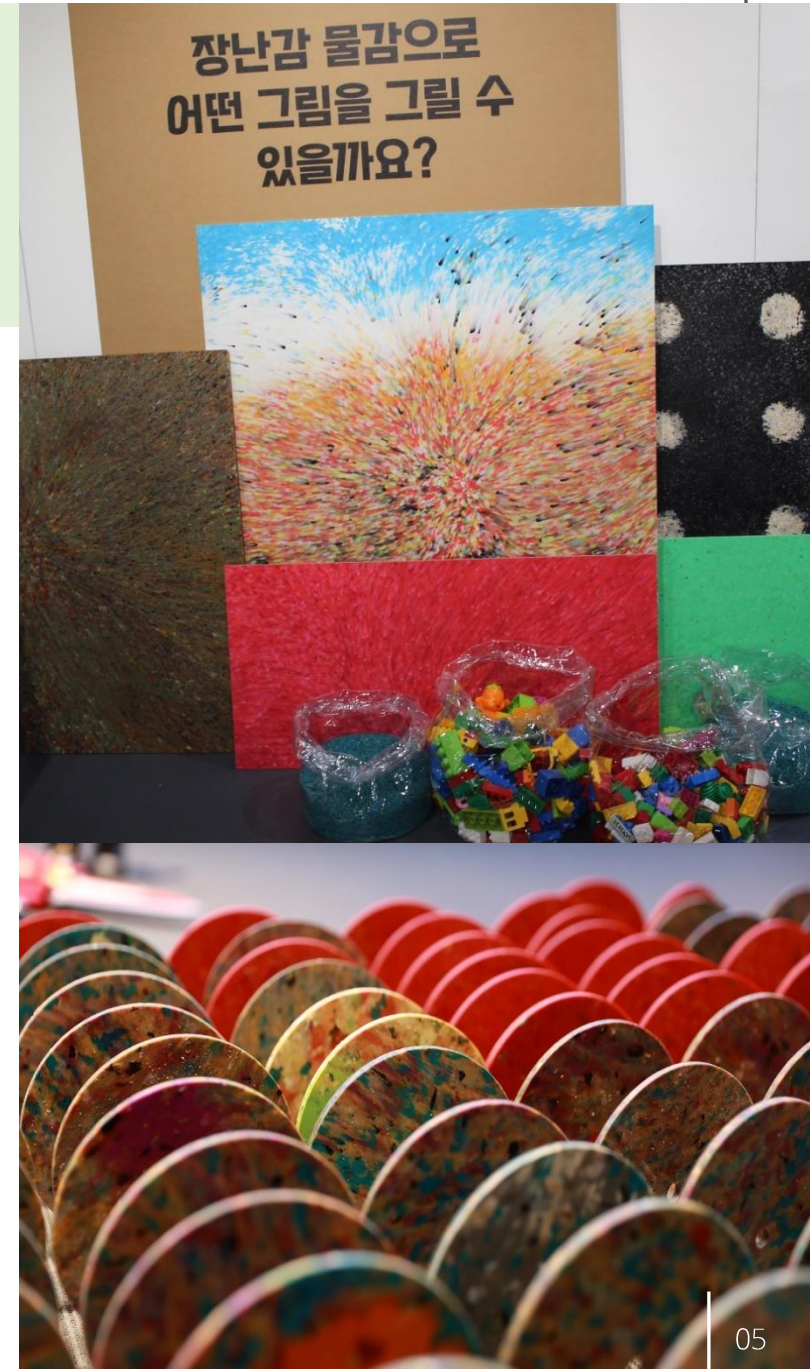
Q. 트루의 대표적 활동 및 디자인 개발 사례, 또는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을까요?

A. 트루는 1998년 사회적 기업 금자동으로 설립되어 2020년에 비영리 단체로 전환되었습니다. 영리 기업에서 비영리 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만, 금자동이 때부터 24년 동안 같은 일을 해왔지요. 트루에게는 장난감의 재활용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재활용 현장은 늘 치열하고 힘들기에 세련된 디자인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주요한 사례 중 하나로 2012년에 개최했던 <Art Up Festival with Toy>를 들 수 있습니다. 버려진 장난감 20여 톤을 이용해 예술가 100명이 2박 3일 동안 예술품을 만드는 축제였습니다. 장난감 쓰레기도 예술 작품의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한 이 축제는 일산 호수공원에서 개최되어 2만 명의 시민이 관람했으며 이후에도 주제를 달리해 진행되었지만 아쉽게도 현재 지속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점으로 많은 예술가들과 콜라보레이션 전시를 진행할 수 있었지요.

두 번째는 역시 장난감학교 <쓸모>라는 매우 좋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중화시킨 일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체험학습이나 환경교육은 현장에 뿌리를 내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의 연구와 경험을 통해 현재까지 남녀노소 약 40만 명이 장난감학교 <쓸모>의 체험을 경험했기에, 상당한 대중화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진행하는 사업은 업플라스틱 널을 실물 기반의 NFT로 발행하는 ‘널고’ 프로젝트입니다. 약 1,000장의 널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디지털로 바꾸어 NFT로 발행하는 실물 기반 NFT 프로젝트죠. 트루가 만든 NFT를 구매하면 널 실물 작품(500*500*5T)을 함께 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작업이고 스토리도 세계관도 독창성도 매우 뛰어난 프로젝트입니다. 약 300개의 작품은 사단법인 트루 정기후원자들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제공할 예정이고 퍼블릭 민팅은 올해 10월 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Q. 트루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와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A. 저희의 최종 목표는 장난감이 쓰레기가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장난감은 장난감답게 재활용되어야 합니다. 장난감은 어린이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나고 어린이의 친구 역할을 다한 후 폐기됩니다. 어린이들의 사랑과 추억이 담겨 있는 장난감이 썩지도 못하고 어린이들이 살아갈 이 땅을 오염시키는데 가세하게 된다면 장난감에게도 어린이에게도 인류에게도 모두 비극입니다. 저희는 어린이의 사랑과 추억을 품고 있는 장난감이 이곳에 모여 근사하게 재활용되는 모습을 항상 꿈꿉니다. 그들은 사단법인 트루를 통해 장난감으로 다시 만들어질 것이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예술품으로, 건축의 재료로 매우 오랫동안 그 쓸모를 이어갈 것입니다. 사단법인 트루의 재활용 공장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난감 테마파크가 될 것입니다.





CMF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제안하는 일곱 번째 트렌드 주제 'Playful expression'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컬러, 소재를 제안한다. 컬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업사이클링 디자인 활동을 통해 추출되는 플라스틱 판재 '널'의 패턴에서 영감을 얻었다. 창의적 상상과 발상의 크리에이티브 퍼플(Creative Purple), 선한 영향력의 트루 그린(TRU Green), 소소한 작은 실천을 지향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 변화무쌍한 업사이클링 레드(Upcycling Red), 친근하고 애착이 느껴지는 빈티지 파우더(Vintage Powder), 암흑의 시기를 극복하고 강한 생명력으로 재탄생한 리본 플레이크(Reborn Flake) 6종이다.

그리고, 주제와 연결하여 함께 추천할 만한 디자인 소재들을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재 라이브러리 DB에서 찾아 소개한다. 재생 PP 100% 소재로 업사이클링 하여 비즈 형태로 사출한 재생 펠릿 비즈(Recycled Pellet Beads), 반짝이는 빛의 변화와 그림자를 이용한 직조 비닐 바닥재 트와일라잇(BOLON Twilight), 폐포장지 재활용 디자인 프로젝트 '나는 포장지였습니다'.(I was wrapper), 화재 진압 후 버려지는 소방호스를 활용해 핸드 메이드로 제작한 소방호수 파우치(Fire Hose) 4종이다. 이상 추천 제안한 10가지의 트렌드 컬러와 소재 샘플들은 인천디자인지원센터 2층 쇼룸에 방문하면 직접 만나 볼 수 있다.

* 트렌드 컬러 샘플은 22년 11월 중 전시 예정

크리에이티브 퍼플
Creative Purple
IDSC-PV007-22B



트루 그린
TRU Green
IDSC-GR012-2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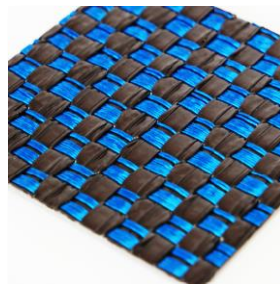
미닝아웃
Meaning Out
IDSC-YB017-22B



재생 펠릿 비즈
Recycled Pellet Beads
PLA-A427



트와일라잇
BOLON Twilight
PLA-A385



업사이클링 레드
Upcycling Red
IDSC-RE013-22B



빈티지 파우더
Vintage Powder
IDSC-BL013-22B



리본 플레이크
Reborn Flake
IDSC-BW010-22B



나는 포장지였습니다.
I was wrapper
POT-A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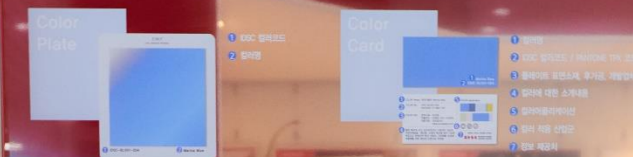
소방호수 파우치
Fire Hose
FAB-A085



IDSC COLOR LIBRARY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컬러 라이브러리 Since 2020

2020년부터 새롭게 구축된 Color Library는 기존 디자인소재 뿐만 아니라 컬러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최신 CMF 디자인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컬러에 대한 기본 정보는 미국의 세계적인 색채 연구소이자 색상회사인 팬톤(Pantone)사의 컬러코드를 활용하여 제공하며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컬러배색, 어플리케이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Pantone Color Institute

2020년 팬톤 컬러연구소(Pantone Color Institute)가 정한 Pantone Color of the Year 2020는 'Living Coral'이다. 팬톤 컬러연구소는 색채의 변화와 문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매년 Color of the Year를 선정한다. 팬톤 컬러연구소는 색채의 변화와 문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매년 Color of the Year를 선정한다.

팬톤 컬러연구소는 색채의 변화와 문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매년 Color of the Year를 선정한다. 팬톤 컬러연구소는 색채의 변화와 문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매년 Color of the Year를 선정한다.



한편 팬톤은 지난 2000년부터 매해 12월 클래식 블루(Classic Blue)를 Color of the Year로 선정하고 있다. 팬톤 컬러연구소는 색채의 변화와 문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매년 Color of the Year를 선정한다.



